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9. 14:30 (방문종료시) 배포 2024. 4. 9.(화) 13:00

한덕수 국무총리,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준비상황 점검

- 한덕수 총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예정지 방문
- 선거사무 종사자 격려 및 철저한 투표소 사전점검 당부

□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4월 9일(화) 오후 14시, 서울특별시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의 투표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했다.

* (참석) 서울시장,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서울시 행정국장 등
※ (서울시 현황) △(선출)지역구 국회의원 48명 △(선거인수) 830만명 △(투표소) 2,257개소

□ 한 총리는 “이번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관리의 핵심 사무에 공무원 지원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하고,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불법행위 예방의 필요성도 커졌다”며 투표현장에서의 공무원 역할을 강조하였다.

○ 그리고 서울시장과 행안부차관에게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선관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간의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또한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00-2092)
		담당자	사무관	박도연 (044-200-21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현장점검 모두말씀**

내일 전국적으로 1만 4천2백여개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전투표에서 봤듯이, 우리 국민들의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총 31.28%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우리 투표를 할 국민들이, 투표를 하실 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힘을 합쳐서 이 투표가 질서 있게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과거의 기계에만 의존하던 검표를 수동으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지금 공무원들, 또 경찰들이 선거 과정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소방청, 우리 행정안전부 같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조그마한 차질도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사전투표 때 총 411건 정도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한 80건이 넘는 그 숫자가 기기의 어떤 오작동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많은 공무원들이 투표 과정에, 또 개표 과정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투표가 끝난 다음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시도록 하는 일을 포함해서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이번에 개표 과정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투표 후에 그런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꼭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적발을 사전에 했었고, 또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공무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신성한 그런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런 날이 내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계부처 간에 협력을 해서 차질 없이 투표가 잘 진행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